

인 사 말

최근 국가와 국민적으로 큰일을 겪어가면서, 종단의 의견을 소중하게 경청하고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진력해 오신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시대에 지역 사회를 편안하게 아우르며 결실을 이루는 모습은 종단의 위상을 한층 높여가는 일로 여겨집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해 종단의 살림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개선하여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종단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나 반드시 성취해야 할 사업을 선택하여 집중하였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완급을 조절하여 효과적인 종무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구본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전년도 중앙분담금이 완납되어 각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종단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신도시종교용지 매입과 성역화사업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확연하게 절약할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우리 종단은 사부대중 모두의 숙원인 총본산 성역화와 승려복지 등 중점 사업이 의미있는 진전과 가시적인 성취를 한걸음씩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깊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더하여 올해부터 관리가 강화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모든 사찰이 원만하게 대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잘 점검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함께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덧붙여 옛 봉은사 부지에 예정하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현대자동차 사옥 건립에 대응하는 종단의 고심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재 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인허가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것은 졸속이고 전형적인 특혜개발로 봉은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찰과 문화재의 심각한 훼손은 비단 봉은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찰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늘 함께 고민하면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종단의 현안과 본연의 종교적 책무와 더불어,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갈등위기도 잘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큰 충격과 혼란이 이어져 왔으며, 급기야 거대한 민심의 물결이 크게 맞서는 매우 걱정스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국민의 삶이 안정을 되찾고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역곳곳의 주지스님과 사찰이 시민들의 마음을 깊게 살피주시고 여러 걱정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는 3월 27일에 봉행하는 제14대 종정예하 추대식에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많은 사부대중이 뜻 깊은 참석을 이루어 지혜의 덕화를 공경하여 나누고, 종단의 밝은 미래와 국가와 국민의 편안함을 함께 기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단은 교구본사의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공유하고 함께 해소해가면서 불교적 책무를 다하고자 진력하고 있습니다. 교구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종단에 기여하는 모습이 한결같고, 함께하는 원력으로 우리가 마주한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노력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61년 3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